

# 동아시아에서 파월이 넘어야 할 관문

## 미묘한 시기에 한국·중국 등 순방, 당사국들도 美 정부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기회

Bates Gill

콜린 파월 美 국무장관은 오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일정은 도쿄(東京)에서 시작, 하노이·서울·베이징(北京)을 거쳐 캔버라에서 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 파월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논란 많은 이슈와 협력 사안을 비롯해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10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위한 기초를 닦게 될 것이다. 파월의 방문은 다양한 주요 이슈에서 이 지역에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며 외교관으로서의 수완이 동맹국에서도 혹독하게 시험받을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그의 방문으로 이 지역 주요 당사국들은 초기에 부시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선 도쿄에서 파월은 미·일 동맹 강화라는 부시 행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한달 전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의 워싱턴 방문에서 이뤄진 합의를 기초로 도쿄에서 결속의 메시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또 미국 정부가 일본의 경기침체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은 이번 도쿄 방문에서 일본 경제의 재활성화와 개혁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파월은 오키나와(沖縄)에서 미군 병사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후 주일 미군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시점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파월은 미국 정부가 일본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측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협력체제를 진정으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월의 아시아 순방에서 핵심 일정은 7월 24~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과 ASEAN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 회의는 베트남의 정치적 재기와 지역 재편입에서 또다른 큰 진전이 될 것이다. 파월로서는 특히 감회가 남다른 회의가 될 것이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 초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군경력을 쌓았고 그때의 교훈에 따라 군사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ASEAN 지역 포럼 자체는 별다른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회의는 이 지역의 외교 책임자들 서로간에 부차적인 대화와 좀더 공식적인 협의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흥미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파월이 북한측 고위 인사와 짧은 만남이라도 갖는 것이다(북한은 2000년 ASEAN 지역 포럼에 가입했다).

하노이 다음으로 파월은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얼마전 발표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이다. 남북한 대화 재개와 대북 포용정책 지지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 타협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북한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파월의 순방에서 가장 힘든 지역은 베이징이 될지도 모른다. 현재 중국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중·미 관계는 주기적인 상승 시점에 놓여 있다. 베이징이 2008년 올림픽을 유치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게 됐으며 부시가 10월 베이징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자신감에 차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그런 중국측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는 분명치 않다. 워싱턴에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으며 부시팀의 접근방식은 중국측에 실망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올해 초 중·미 관계의 험난한 시작을 감안한다면 파월의 방문은 양국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파월은 호주 캔버라에서 7월 30일 열리는 호주-미국 연례 장관급 회담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파월의 임무중 하나는 호주와 미국의 동맹관계가 부각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를 저지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 파월은 지역 및 다자간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인도네시아의 불안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하며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자유무역 의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파월의 방문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좀 덜 독단적인 미국이다. 파월은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순방을 이뤄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파월의 이번 동아시아 방문은 이 지역 지도자들이 초기에 미국의 접근방식을 그런 쪽으로 굳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는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센터 소장·for NWK)